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창세기 27 주차 (창 22:6~23:2)

(2016년 6월 19일 - 2016년 6월 25일)


(제 4 권 27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2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6 월 1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자이자 제사장이 된 아브라함 (주입)

### 오늘의 본문 (창 22:6)

(6 절)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וַיִּקַּח אַבְרָהָם אֶת-עֵצֵי הָעֵלֶה וַיָּשֶׂם עַל-יִצְחָק בֶּן־)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וַיִּקַּח בְּיָדוֹ אֶת-הַשֵּׁשׁ וְאֶת-הַמַּאֲכָלֹת)   
 그들 둘은 함께 갔습니다. (וַיֵּלְכוּ שְׁנֵייהֶם יחד)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마친 아브라함은 나무를 들어 이삭에게 지워주었다. 나귀가 운반하던 나무는 이삭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이 광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심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 채찍에 맞는다. 그 채찍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다. 일명 전갈 채찍이라 불리던 것으로 끝에 전갈의 독니처럼 갈고리 모양의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껍질이 벗겨지도록 만들어졌다. 그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엉망이 된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얹어졌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자 동행하던 로마 병사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였다. 로마 병사는 다짜고짜 그를 잡아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 시몬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수밖에 없었다. 엉겁결에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했다. 십자가는 다시 예수님께 옮겨졌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 못박혔다. 시몬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십자가를 골고다에까지 대신 지고 가긴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나귀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 입구까지 나무를 지고 왔다. 이제는 이삭의 차례다. 나무는 희생될 제물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둘은 함께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다. 불은 나무를 태우기 위한 것이고, 칼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의 집행자이다. 희생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요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었고 형을 집행한 이들은 로마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을 집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 18절~20절과 9장 11절~12절을 읽어보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히 6:18-20).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창 9:11~12).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역지로 그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역사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희생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도 한계가 있었다. 매년 제물을 드려도 일시적일 뿐이었다. 따라서 모든 제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었다.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 한계가 있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전혀 다르다. 그는 죄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인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의 대표인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11:23~26).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에 비해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모노드라마였다. 예수님의 등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얹혀져 있었다.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홀로 힘겹게 끌고다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얽치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지는가? 아니면 배고픈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달라고 보채듯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묵상을 위한 질문

희생 제물이 될 아들을 앞세우고 불와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과 자기가 죽을 것을 전혀 모른 채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면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이나요?

## 아버지...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7~8)

(7 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צְחָק אֶל-אַבְרָהָם אָבִיו)

그[이삭]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וַיֹּאמֶר אָבִי)

그[아브라함]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다. (הֲיִנִי בְנִי)

그[이삭]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הֲנֵה הָאֵשׁ וְהָעֵצִים)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וְאֵינָהּ הִשָּׂה לְעֹלָה)

(8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רָהָם)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אֱלֹהִים יִרְאֶה-לוֹ הִשָּׂה לְעֹלָה בְנִי וְיִלְכוּ שְׁנֵיהֶם יחד)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서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갔다. 나귀의 등에 실려있던 번제를 위한 나무는 이삭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이삭이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른다. “나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는다. “보시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참으로 가슴을 에는 대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며 묻는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삭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자신이 희생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희생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아들의 눈도 맞추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걸었을 것이다. 조금 후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결박하고 직접 칼로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한다. 그리고 아들이 지고가는 그 나무로 아들의 몸을 불살라야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은 해야만 한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찾은 것을 보면 예전에 아버지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삭이 곁에서 본 적이 있음에 틀림 없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예배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렇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희생 제물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엔 없다.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흘 전 집을 나서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아브라함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결눈으로 아들을 계속 쳐다보았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간 순간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긴 여행을 한 게 난생 처음이었을 지도 모른다. 아들 이삭은 오는 내내 마음이 들떠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희생 양에 대해 물었다. 아브라함은 애써 감정을 추스렸다.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안심시켜야 했다. 아브라함에게 순간 떠오른 분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 전부터 몇 번이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이삭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의 나이 아흔 아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9).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삭을 낳고 난 후 이스마엘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창 21:12).

그런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번덕이 죽 끓듯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뭔가 대책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내내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겼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삭에게 말하긴 했지만 막상 그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는 점이다.

믿음이란게 그렇다. 믿음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무관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게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1:19~22).

## 묵상을 위한 질문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묵묵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약속과 전혀 상반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 이삭을 결박하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9~10)

- (9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וַיָּבֹאוּ אֶל-הַמָּקוֹם אֲשֶׁר אָמַר-לוֹ הָאֱלֹהִים)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ן שָׁם אֲבְרָהָם אֶת-הַמִּזְבֵּחַ)  
 나무들을 정돈하여 놓았습니다. (וַיַּעֲרֹךְ אֶת-הָעֵצִים)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וַיַּעֲקֹד אֶת-יִצְחָק בְּנוֹ)  
 그는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וַיִּשֶׂם אֹתוֹ עַל-הַמִּזְבֵּחַ מִמַּעַל לְעֹצִים)  
 (10 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וַיִּשְׁלַח אֲבְרָהָם אֶת-יָדוֹ)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וַיִּקַּח אֶת-הַמַּאֲכָלֶת לְשַׁחַט אֶת-בְּנוֹ)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장소,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앞서 공부했듯이 모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됨’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번제할 장소로 모리아 산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들을 제단 위에 벌려 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브라함은 곁에서 있는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칼을 빼들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을 읽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은 마치 냉혈한 같다. 상식 밖의 일을 너무도 침착하게 해내고 있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소시오패스처럼 보인다. 소시오패스들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잡히고 나서도 감정의 동요없이 태연하게 범죄 과정을 재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긴장이 덜하지만 막상 내 눈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으로 치가 떨리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또 무슨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걸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만약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고 말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히 11:19).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그 옛날 한 번도 부활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놀랍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말이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토대를 상실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다른 종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흔히 말하는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는 다른 배타성을 가지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 장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용이 길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2~19).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하다.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활을 믿은 최초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고 그를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빼드는 모습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자신과 단둘이서만 모리아 산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결박당해 아버지의 칼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골고다 길을 오르셔야 했다. 물론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땀이 피가 돼 떨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거절하셨다. 그것도 세 번이나... 결국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에 기뻐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 놓고 짐을 얻는다.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속박으로부터 풀려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에게 쉽이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하고 지저분하며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토록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한꺼번에 일어났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몰차게 거절 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이다. 은혜를 받았는가? 짐을 얻었는가? 자유가 있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당신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 아브라함의 믿음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11~12)

(11 절) 그러나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 אֵלָיו מִלְאָךְ יְהוָה מִן־הַשָּׁמַיִם)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אֲבְרָהָם אֲבְרָהָם)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נְנִי)

(12 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뺏지 말아라. (אַל־תִּשָּׁלַח יָדְךָ אֶל־הַנֶּעָר)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וְאַל־תַּעַשׂ לוֹ מְאוּמָ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כִּי עַתָּה יָדַעְתִּי כִּי־יְרֵא אֱלֹהִים אֶתָּ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וְלֹא חָשַׁבְתָּ אֶת־בְּנִיבְנִי אֶת־מִצְיָתְךָ מִמֶּנִּי)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다. 그가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와 천사가 그를 불렀다. 천사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순간 아브라함이 멈칫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부름에 대답했다. 그러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뺏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창 22:12).

아브라함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내려 놓았다. 아니 내려 놓았다기보다는 떨어뜨렸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난 사흘 동안 생애 가장 긴 여행을 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삭은 마냥 신이 나서 걸었을 것이다. 이것 저것 호기심 어린 질문도 하고,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을 지도 모른다. 그 때마다 아브라함은 애써 웃으며 아들을 대했을 게다. 천천히 걸었지만 사흘 만에 결국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제단을 쌓았다. 이삭의 등에 얹혀 있던 나무를 제단 위에 벌여 놓고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결박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 놓고는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통해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모

르고 계셨다는 말인가? 굳이 이런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 봐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다. 하브리어로 ‘두려움’은 ‘야레’(אָרֵר)다. 이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극한 존중의 의미가 들어간 경외의 표현으로 쓰인다. 두려워 한다는 말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해도 묵묵히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규정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40).

믿는 자들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자신이 그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생은 없다. 사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고통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신 이유가 하나님이 무섭고 공포스런 분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시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 신실하신 하사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설령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비겁하고, 기회주의자며, 우유부단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 시험을 통해서만 확실히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시험은 그 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은 시험을 보았고 100 점을 맞았다. 자신에게 그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지식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낸 과정,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부부가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 둘 쌓여 자라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라가고 성숙해간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신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받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격려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하실 것이니라”(벧전 1:6~7).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다. 고만고만한 시험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큰 시험에 직면할 때도 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면 참고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의 시련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도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있음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 ‘여호와 이레’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13~14)

- (13 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וַיִּשָּׂא אַבְרָהָם אֶת-עֵינָיו וַיִּרְאֵ) 수풀 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וְהִנֵּה-אֵיל אֶחָד נֹאֲחָז בְּקַרְנָיו)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았습니다. (וַיִּלֶּךְ אַבְרָהָם וַיִּקַּח אֶת-הָאֵיל) 그는 그의 아들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וַיַּעֲלֵהוּ לְעֹלָה תַּחַת בְּנוֹ)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וַיֵּשֶׁב אַבְרָהָם בְּבְאֵר שֶׁבַע)
- (14 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וַיִּקְרָא אַבְרָהָם שְׁם-הַמָּקוֹם הַהוּא יְהוָה יֵרֵאֵ) 오늘날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 하듯이, (אַשְׁרֵי אֲמַר ה'וֹם קָדֵר יְהוָה יֵרֵאֵ)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천사의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다. 바로 그때 수풀 속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다. 그는 그 숫양을 잡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해석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장면은 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아브라함의 감정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불의한 행동이나 불경건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모두가 다 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실 때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죄인들의 불의함, 추하고 악함을 폭로하신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불의가 가득한 가식이 있었음을 폭로하기도 하고, 삶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넣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시기도 한다. 때론 갑작스런 병으로 그동안 갖고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경우도 있다.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와의 불륜을 방치해 두심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자

기 의로 가득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때론 그 과정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수치감으로 인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만약 믿는 자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일 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 모리아 산에 이를 때까지의 사흘 간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삭이 어깨에 짊어진 나무는 죄인을 불사르기 위한 형벌의 도구이다. 이브라함의 손에 들리워져 있는 칼은 죄인을 살육하기 위한 사형 도구다. 죄인은 그렇게 심판 받아 죽어야 한다. 그 죄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지시한 장소인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 누구든 예외없이 고통스런 발걸음을 내디디며 거기까지 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 없이 구원은 없다. 죄인도 아닌데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죄인이 묶여 형벌의 나무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멈추라고 명하시지 않았다. 희생 제사는 드리되 제물을 바꾸어 희생 제사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죄인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 한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과 두려움에 압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에 매다신다. 우리 대신 준비한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동안 자기를 움켜져 왔던 두려움, 염려, 고통, 불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까지 고통스럽게 끌고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 형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대속제물로 나타나신 것이다. 나를 결박했던 그 끈을 풀고 대신 하나님을 결박했다. 나를 죽이려던 그 칼로 대신 하나님을 살육했다. 나를 불태우려던 그 나무로 하나님을 불태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절망,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당신의 구원의 과정은 어떠한가? 당신의 구원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여호와 이레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새 언약이 선포되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15~19)

(15 절) 여호와와 그의 천사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קְרָא מֵלֶאֱלֹהִים אֶל־אַבְרָהָם שְׁנֵית מֵן־הַשָּׁמַיִם)

(16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였다. (כִּי נִשְׁבַּעְתִּי נְאֻם־יְהוָה)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כִּי יַעַן אֲשֶׁר עָשִׂיתָ אֶת־הַדָּבָר הַזֶּ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וְלֹא חָשַׁכְתָּ אֶת־בְּנֶךָ אֶת־יְחִידְךָ)

(17 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כִּי־בָרַךְ אֶבְרָכְךָ)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וְהָרְבָה אַרְבָּה אֶת־זַרְעֶךָ כְּכּוֹכְבֵי הַשָּׁמַיִם וְכַחֹל אֲשֶׁר עַל־שְׁפַת הַיָּם)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 할 것이다. (וַיִּרְשׁ זַרְעֶךָ אֶת שַׁעַר אֹיְבֶיךָ)

(18 절) 또,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וְהִתְבָּרְכוּ בְּזַרְעֶךָ כָּל גּוֹי הָאָרֶץ)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로써, (עַקֵּב אֲשֶׁר שָׁמַעְתָּ בְּקוֹלִי)

(19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וַיָּשָׁב אַבְרָהָם אֶל־נַעֲרָיו)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וַיִּקְמוּ וַיֵּלְכוּ יַחְדָּו אֶל־בְּעֵל שַׁעַב)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 제물을 받으셨다. 물론 희생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수풀에 뿔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던 숫양이다.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되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미리 준비해 둔 제물이었다. 제물만 바뀌었을 뿐 희생 제물을 잡은 칼도, 그것을 태운 나무와 불도 모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 덕분에 사형 직전 살아난 바라바라는 강도가 생각난다. 바라바는 강도다. 그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혀 온 유월절 전날 밤만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코앞에 둔 사형수였다. 몇 시간 후면 그는 다른 두 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세 명의 죄수들을 매달아 죽일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에 갑자기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 잡혀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유불문하고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가 피를 냈다. 사형을 앞둔 죄수 중 한 명을 특별히 유월절에 풀어주는 관례를 앞세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라바와 예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유



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붙렸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바라바는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빌라도가 자신을 석방한 것이다.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감옥문을 나섰다. 자기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는 자기 대신 예수님이 달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라바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라바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바라바의 모형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로서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창 22:16-1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하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강대국이 된 적은 한번도 없다. 가장 부강했다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겨우 팔레스틴 땅 일대를 통일했을 뿐이다. 그들은 늘 그렇게 작은 국가였고, 외부의 침입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번듯한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기간보다 노예로 살거나 식민지로 살고, 나중에는 나라없는 떠돌이 신세로 산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포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결국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쳤고, 예수님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16).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모두의 조상도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것이 은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 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2:20~23:2)

- (20 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וַיֵּגֵד לְאַבְרָהָם לְאִמָּה)  
 보십시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הֲנִיָּהּ יָלְדָה מְלָכָה גַם־הִוא בְּנִים לְנַחֲוֹר אַחִי)
- (21 절) 그의 첫째 아들은 우스,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אַת־עוֹיִן בְּכוֹרוֹ וְאַת־בוֹז אָחִיו וְאַת־קְמוּאֵל אָבִי אָרָם)
- (22 절) 게셋과 하소, 벨다스와 이들랍, 그리고 브두엘이었습니다.  
 (וְאַת־כְּשֹׁד וְאַת־חִזּוֹ וְאַת־פְּלִדָּשׁ וְאַת־יִדְלָר וְאַת־בְּתוּאֵל)
- (23 절)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וּבְתוּאֵל יָלַד אֶת־רַבְקָה)  
 이 여덟 명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습니다.  
 (שָׁמְנָה אֵלֶּה יָלְדָה מְלָכָה לְנַחֲוֹר אַחִי אַבְרָהָם)
- (24 절) 나홀의 첩,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וּפִילִגְשׁוּ וְשִׁמָּה רְאוּמָה)  
 그녀도 또한 데바와 가함,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וּמִלָּד גַּם־הִוא אֶת־טֹבַח וְאַת־גָּחַם וְאַת־תַּחַשׁ וְאַת־מַעֲכָה)
- (23 장 1 절) 사라는 127 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햇수입니다.  
 (וַיְהִיו חַיֵּי שָׂרָה מֵאָה שָׁנָה וְעֶשְׂרִים שָׁנָה וְשִׁבְעֵי שָׁנִים שְׁנֵי חַיֵּי שָׂרָה)
- (2 절) 사라는 기랴트아르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וּמָמַת שָׂרָה בְּקִרְיַת אַרְבַּע הוּא חֶבְרוֹן בְּאֶרֶץ כְּנָעַן)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를 위해 애통하고 그녀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וַיָּבֹא אַבְרָהָם לְסֹפֵד לְשָׂרָה וּלְבַתָּ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다. 그 동안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 앵글은 이제 장소를 옮겨 밧단아람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에게로 넘어간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참으로 뜬금없다.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부인이다. 데라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하란은 일찌기 고향 우르에서 죽었다. 데라는 두 아들 아브라함, 나홀과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인 밧단아람(하란)으로 왔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고, 나홀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밧단아람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홀의 가족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홀은 본처인 밀가로부터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고, 첩 르우마로부터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밀가로부터 나온 아들 중에 브두엘이 있다. 밀가의 아들 중 마지막 막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여덟 번째 아들로 추정된다. 그 브두엘이 낳은 딸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

는 리브가다. 브두엘은 아들도 두었는데 그가 라반이다. 그러나 성경은 리브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사가 중간에 끼어든 이유는 바로 리브가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리브가를 소개한 후 바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아담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까지 여인들의 삶에 고통이 많을 거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 온 여인들은 메시아를 낳기 위한 역할을 대를 이어 담당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그랬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나이 아흔이 되어서야 그녀의 태를 열어 주었다.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이를 갖기까지 애를 먹었다. 리브가는 이삭의 나이 마흔에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예순이었다. 결혼을 한 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야곱의 첫 아내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지만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기까지 레아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다를 낳고 나서 사실상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대신 여호와를 찬양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또 어떤가? 다말은 남편 복이 없어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었다. 사아버지는 남은 아들조차 죽을까 두려워 다말에게 그를 넘기지 않았다. 그런 다말은 피를 내어 사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4대에 걸친 여인들의 잔혹사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자손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런 삶을 산 여인이 바로 사라다. 그녀는 불임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에게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처인 사라는 불임 여인이다. 불임 여자에게 수많은 자손이라니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그 모순 속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 여인이 사라다. 게다가 남편 아브라함은 팔푼이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 뿐인가? 하나님은 농업이 발달한 우르에서 정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으로 만들었다. 그덕에 사라의 남편이 옮겨다닐 때마다 짐을 싸야 했고, 어딘가에 멈춰 장막을 치면 그 장막에 머물러야 했다. 이런 생활은 이삭을 낳고 헤브론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는 127세로 과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이삭이 마흔에 결혼을 했으니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렇게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에게 바통을 넘기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지만 사라는 이삭을 낳기까지 비통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여중 하같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하갈로부터 임신 못하는 여인이라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다. 아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겨우 웃을 수 있었다. 그것이 사라의 인생이었다. 사라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버랩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라 역시도 믿음의 여인인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